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2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1일(음력 2월 1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한국 불교계의 후원 감사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구촌 생명살림 국제구호 캠페인'이 3월 18~23일 캄보디아 시엠립과 삼라옹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찰과 학교, 취약계층 주민에게 물품을 지원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발성 지원이 아닌 2024년부터 이어 온 지속적인 해외 구호사업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시엠립과 삼라옹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쌀과 의료품, 교복과 노트북 등 약 1억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 3월 19일 캄보디아 시엠립 소재 쁘레앙 뜨루엉 사찰에서 열린 물품전달식에서 스님과 지역 아동들이 팔 하트로 한국불교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관련 기사 10면〉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창종 80주년 진각종, 밀교의례 복원 나선다

진각종, 3월 23일 신춘기자회견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등 발표
'진호국가의례 복원' 등 집대성
국가무형유산 등재 추진 계획도
문화법인 설립, 문화사업 전문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27년 창종 80주년을 맞는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밀교문화의례 복원과 집대성에 나선다. 또한 종단 내 문화법인을 설립해 진각종 특유 장엄등 제작 인재를 양성하고 지적재산권 문화사업을 전문화하는 등 문턱을 낮추는 포교를 추진한다.

진각종은 3월 2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 4층 대회실에서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신춘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각종은 창종 80주년을 맞아 전개될 주요 종책과 기념사업 계획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진각종은 △종단 장단기 종책 발굴 △한국밀교문화 집성 및 진호국가의례 복원 △창종 80주년 기념행사 및 문화법인 설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가 진각종 창종 80년이고 내년이면 창종 80주년이 된다"면서 "창종 80주년 기념 불사를 통해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갈 비전을 구축하고, 32대 집행부가 서원하는 인재 양성·재원 마련·시스템 정비 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를 포함 13억원이 투입되는 한국 밀교문화 육성 및 진호국가의례 복원 불사는 향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제 밀교법회를 통해 국내외 밀교 의례 불사를 봉행하고 전문 문화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동과 시대를 열어 가는 포교와 교화를 전개하며 정진 또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내보였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진각 창종 80주년 기념사업 TF'를 구성했다. 총괄 TF 단장은 총무부장 원상 정사가, 부단장은 교무부장 수각·기획실장 청효·포교부장 원영 정사가 맡는다.

특히 진각종은 밀교의례사업단이 중심이 돼 추진되는 진호국가의례 복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6년부터 3년간 진행됐던 '한국밀교총람사업'의 후속으로 국고 약 13억원이 투입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수각 정사는 "한반도에 전래된 밀교의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종단 고유의 진호국가 불사에 대한 학술적 정비와 재난 극복(식재)과 국가 발전(증익)을 기원했던 신라 문두루비법 식재·증익 호마의례를 복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창종 80주년 사업은 진각종의 강점 중 하나인 '문화'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진각종은 △화해와 평화 서원 국제밀교대법회 △진각밀교음악콘서트 △진각 전통 장엄등 특별 전시회 △제24회 회당문화축제를 진행한다.

2027년 10월 29일 진각종 총본산 총인원에서 봉행되는 국제밀교대법회는 몽골의 간단사, 일본의 신뇨엔에서 참여해 각 나라 고유 밀교의례 중 '식재'를 대중 동참 형식으로 진행된다.

진각밀교음악콘서트는 진각종만의 찬불가인 '서원가'를 확장한 개념이다. 2027년 10월 30일 오후 2시 진각종립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서원음악 70주년 기념 제5회 창작 서원가 발표회'와 '세계밀교음악회'로 나눠 진행된다. 세계 밀교음악회에서는 북인도 라가음악, 네팔 진언음악, 중국과 일본의 불교음악이 소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진각종은 '문화법인'을 설립해 문화 사업 전문화와 고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각밀교문화의 생활화 및 지도 인력을 육성하고 종단 지식재산권(IP) 활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증진하겠다는 게 진각종의 설명이다.

원상 정사는 "진각종의 전통 장엄등을 대여·전시하고자 하는 지역 축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교단체다 보니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다"면서 "문화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종단 IP를 활용한 전문적인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종단 문화사업들을 전문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기사 2면〉

발행인 편지

4월 1일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오며,

독자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4년 창간 이래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 주신 구독자님이 계셨기에 신문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요. 커피 한 잔 값이 5000~6000원이나 하고, 직장인들 점심값이 1만원이 넘는 세상이 됐으니 사는 게 참으로 팍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 인상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4월 1일부터 현재의 구독료 5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구독료 인상은 2002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불교계의 다른 신문은 이미 2024년부터 구독료를 1만원으로 인상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구독료 인상 대신 비용 절감 등의 경영합리화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문 원자재 가격과 인쇄 및 우편요금 등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현재 신문 1부당 순수 제작 원가(월)는 1만330원이 되었고, 지금의 구독료 5000원(월)은 제작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구독료만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신문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독자님의 만족도는 더욱 높여 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볼 만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한 구독료는 부처님 세상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정보지'로 고급화하고, 불교계 소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인터넷, 유튜브, SNS)을 구축하는 데 쓸 것입니다.

독자님의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 발 행 인 혜 도
대표이사 한명우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봉축위, 표어 · 포스터 최종안 발표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가 최종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이하 봉축위)는 3월 26일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와 연등회 포스터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봉축위는 "내·외부의 심도 있는 추가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의 주제 의식을 가장 압축적이고 울림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최종 표어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제적으로 격한 대립과 전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의 평안'이라는 실천적 가치로 담아내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해 표어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디자인된 부처님오신날 봉축 포스터 2종은 평안하게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과 깨달음의 상징인 보리수 잎을 실루엣으로 표현했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연꽃 형상으로 모아져 온 세상으로 넓게 퍼져 나가는 모습으로 구성됐다.

한편 봉축점등식은 4월 22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연등회는 5월 16~17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